

“대중 포용하는 방송기능 강화”

인터뷰 불교방송 신임사장
조 해 형 씨



— 불교방송 사장에 선임되셨는데 소감부터 들려주시지요.

▲ 먼저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동안 불교방송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선임소식을 듣고 불교방송에서 나같은 경제마인드를 원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방송의 사장으로서 불교계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적을 쌓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랫동안 경제분야에서 활동해오신 전문 경영인으로서 계교안팎에서 거는 기대가 큼니다. 불교방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이러한 것을 실현할 생각입니다. 이미 불교방송이 세워놓은 설계에 새 사장으로서의 비전을 가해서 좀더 튼튼한 설계를 확정,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장자리가 공적이었던 관계로 제 생각에는 조직내에 비능률적인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직 재정비 작업을 통해서 경영능률의 극대화를 추구할 생각입니다.

— 법인관리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조계종과 불교방송의 관계가 미묘해질 전망인데요.

조직 재정비 통해 경영능률 극대화 “전국 방송망 확대 포교기반 다질터”

▲ 불교방송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위 주변환경이라는 것이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에 불교방송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선 경영기반구축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불교방송이 경쟁력을 가진 우수 방송국으로서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 이사장 종하스님께서 조계종 종회의 원이시니만큼 많은 부분 도와주시길 것으로 봅니다. 저는 불교방송을 위한 대외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쓸까 합니다. 진정한 포교방송,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불교방송은 우선 우량기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저의 경영마인드를 최대한 발휘해 불교방송을 일

구고 그것을 통해 전 불자가 일체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불교방송에서 즐겨 들으셨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점은 고쳐나가야겠다 하는 것이 있으셨다면.

▲ 기업인의 생활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불교방송을 자주 접하는 것이 그리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출근전 집에서

차안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불교방송을 청취했지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근차근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 불교방송의 전국방송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신다면.

▲ 불교방송이 최근 2~3년 사이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불교방송의 전국방송화를 위해 열심히 될 계획이지만 저 혼자 단독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불자 여러분과 종단, 그 밖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뒤지지 않고 경쟁

력을 갖춘 불교방송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저는 항상 제자신을 신생활에 있어서는 초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기업에 몰두하다 보니 능동적인 신생활은 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집안이 대대로 불교집안이고 제 아내인 김인숙교수(국민대)는 불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조계사에 가끔 참배하러 가곤 합니다.

— 법명은 있으신지요?

▲ 법명은 아직 한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 ‘성암(城巖)’이라고 합니다.

이은자 기자

시론

정치는 곧 돈인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돈에 의한 정치타락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92년 대선자금으로 엄청난 금액을 받았다면서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신한국당에게 진상을 밝히려며 공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야권이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정치헌금을 받았으면서 반역에 나서고 있다.

매관매직과 ‘간단 인사’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수설에 대해서는 그 개인성이 깊어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개속에 묻혀있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구 민주당 시절에 전국구 공천과 관련시켜 일개인이 보스에게 건넨 금액은 평균 44억 원이고 여기에 별도의 ‘추진비’라는 게 있다는 것이다. 추진비란 보스에게 줄을 대준 사람이나 전국구 공천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도록 소위 당내 어른들께도 ‘간단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김 대 권
(한국경제신문 편집기획위원)

공명선거를 외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선 그럴 수가 있는나고 분개하고 있다. 전국구 의원직 공천을 돈을 받고 해준다면 과거 옛날조들의 매관매직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 이처럼 돈을 내고 국회의원 공천을 단 인물이라면 역시 그 본질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권리를 신분을 약해해 각종 이권사업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기 사람의 청탁에 주저없이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돈에 의한 정치타락상에 대해 이른바 현실을 잘 안다는 인물들은 그렇게 흥분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 대책을 세우자며 제법 진지한 얼굴을 하는 양반도 있다. 선거를 치르고 정치조직을 운영하려면 돈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현실론자들의 주장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정치는 곧 돈이다 라고 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진실’이나 정책을 알리려면 장소가 필요하고 운동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스의 입장에서든 취약한 지구당에 걸려줄을 보내고 당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충당하는 수단으로 돈있는 사람을 전국구 의원으로 영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두환씨나 노태우씨도 이같은 입장에서 자신들이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뇌물이 아니라 ‘통치자금’으로

현받았는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어찌 하나만 알고 들은 모르느냐는 표정이 고스름다는 자세다.

조그만 부정에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창출시킨 권력은 좋은 정치를 하는 쪽으로 돌리면 될 게 아니냐는 것,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는 논리이다. 이들의 주장도 열렬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진흙탕에 뿌리를 박고 있지만 연꽃은 매우 아름다운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정치와 돈과의 관계도 과연 이와 같을까.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엔 너무도 위험부담이 크다. 만약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지 않고 독초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분명한 것은 현재의 제도가 과연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편인가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검증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국구의 원제는 과연 왜 필요했는가. 정치적인 인기에 의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만 있을 경우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각 직능단체나 전문분야의 인물이 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현재의 전국구 의원이 과연 직능단체나 전문분야의 인물로 공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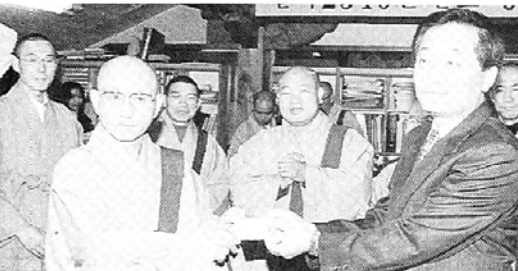
되었는가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이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으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

공명선거제 도입해 볼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선출기준을 개인 인물보다는 정당정책과 실천차세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인물위주로 뽑아주면 그들은 당선후에 적당히 다른 당으로 옮겨가버리고 만다. 그럴 경우 정당이란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현재의 정당은 정당이라고 보다 보스에 의한 개인집단이다. 하루빨리 정당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돈에 의한 정치의 타락상을 막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은 공명선거방식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선거비용은 일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비용 외에는 모두 인정해주지 말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옥외에서 하는 정치유세나 시국강연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옥내에서 후보자끼리 정책토론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이다. 이때 각 지역에 있는 케이블 TV의 지역방송으로 중계를 해주면 생업에 비해 토론토론에 나오지 못하는 유권자에게도 올바른 선택의 잣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성은 기자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8일 신도증 전달식을 갖고 신도증 발급업무 본격화했다. 총무원장 율주스님이 조계종 1호 신도 이계민씨(서울 진관사)에게 신도증을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교계 첫 신도증 발급 의미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8일 조계종 1호 신도인 이계민씨(서울 진관사)에게 신도증을 전달함으로써 신도증 발급업무 본격화했다.

신도증은 조계종이 종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적사찰 및 신도법이 정하는 사찰, 교구, 중앙신도회 조직의 간근이 된다. 이 법에서는 신도의 정의는 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불교 1600년만에 근대적인 신도조직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날 신도증 전달식에도 총무원장 율주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법타스님, 기획실장 현웅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이 참석, 그 중요성을 집적했다.

신도증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신도법을 법적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신도의 정의를 ‘재적사찰 및 종단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신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적사찰 갖기 촉매 될듯”

신도등록 의무화... 종단 조직력 제고
교무금 1만원 교육·복지 등에 사용

포교원은 현재 1만2천여명의 신도들이 신도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4월부터는 교구본사와 주요사찰을 순회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올해안에 10만명, 2천년까지 2백만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신생활을 유도하고 △사찰과 종단의 조직력 제고 △종단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특정사찰에 얽매어 싫어하는 그동안의 신생활태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자칫 종단만 하고 신생활활동은 없는 이른바 신도를 양산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삼보회화, 금강경독송회와 같이 재가불자 중심의 단체를 포함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생활단체도 재적사찰을 갖도록 한다는 포교원의 방침이지만, 이들을 어떻게 종단으로 끌어들이

것인지도 관건이다. 따라서 사찰을 중심으로 한 각종 신생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제시가 또하나의 과제다. 한편 매년 납부하는 교무금 1만원은 재적사찰과 포교원이 50%씩 특별회계로 관리, 포교 신도관리 및 교육 사회 복지 문화사업에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교무금은 기존 신도회에 내는 신도회비와는 별도로 교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성은 기자

신도증 발급받으려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신도법에 따라 조계종의 모든 신도는 재적사찰을 갖고 사찰에 신도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도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적사찰을 갖거나 신도등록을 해야 한다. 재적사찰을 갖지 않으면 신도등록을 받기 어렵다. 신도는 자신이 신행의 근본으로 삼고자 하는 전국적 본당사, 포교당 등을 재적사찰로 정하고, 이 사찰에 신도증 발급을 희망하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교무금(성인 1만원, 18세 미만 5천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을 사찰에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소정의 신도등록서 1부와 증명사진 3매, 신도등록서류를 받은 사찰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신도등록부에 기재하고 교구본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직할사찰의 경우는 포교원에 직접 제출, 신도등록서는 각 사찰 및 포교원(02-720-7060)에서 배포하고 있다.

성철스님문도회가
성철선사상연구원을 설립하고
학술연구비 지원 및 불교학술상을 제정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이래 그 해명을 전하는 역대조사들의 등불은 횡횡 타올랐고, 그 중에서도 선종은 “直指人心 見性成佛”의 깃발 아래 자기의 본성을 단박에 깨쳐서 부처의 수행을 무심히 실천하는 종풍을 드날려 왔습니다. 그러나 종종 異說로 인하여 본래의 정신에서 이탈된 격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안의 종사가 출현하여 철저한 수행과 확연한 언어로 돈오돈수의 本地風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육조 혜능선사의 宗風이 그러하였고, 조선에서는 태고 보우선사의 法脈이 그러하였고, 오늘날은 퇴옹 성철선사의 家風이 그러합니다.

이에 성철스님문도회에서는 그 종풍과, 그 법맥과, 그 가풍을 오늘에 계승하고자 성철선사상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위원을 모집하여 자체의 연구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학술연구비 용역 지원사업 및 불교학술상을 제정하여 불교 연구인의 양성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성철선사상연구원이 시행하는 학술연구비 용역 지원사업 및 불교학술상 제정에 사부대중은 물론 역량이 있는 연구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학술연구비 용역 지원 요강

- ▶ 지원부문 ----- 선불교 및 일반불교의 개별연구 또는 공동연구
 - 1) 성철선사의 어록 및 사상
 - 2) 선불교 및 선사번역
 - 3) 불교 일반 연구
 - 4) 불교와 인접학문 및 과학
- ▶ 신청기간 ----- 1996년 4월 15일(월) ~ 4월 30일(화) 18:00
- ▶ 지원자격 ----- 지원 해당 부문의 전공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 신청방법 ----- 학술연구비 지원요강을 참조하여 소정양식에 따른 서류를 본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는 유효합니다)
- ▶ 선정발표 ----- 본 연구원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년 5월 20일(월) 까지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지함
- ▶ 제출 및 문의처 --- 우편번호 100-380
서울시 중구 명동 18-27(대학문화원 207호)
성철선사상연구원 학술연구비지원심의위원회 담당자
전화/02)265-5215
팩스/02)265-5216
- ▶ 기타 ----- 1) 요강 및 신청서식과 디스켓은 본 연구원에서 배부함
2) 제출된 신청서 및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된 원고는 본 원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으로 출판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연구원으로 문의를 해주십시오.

성철스님문도회
성철선사상연구원

96년 한해 동안 발표한 논문 중에서 우수작 1편, 각각 2편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